

RIC사업은 지역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 구축과 더불어 산업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RIS사업은 지역별 특화가능한 산업분야를 발굴,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RRI사업은 기초지자체(시·군)가 중심이 되어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산업화지원 연구소 설립 등을 지원하여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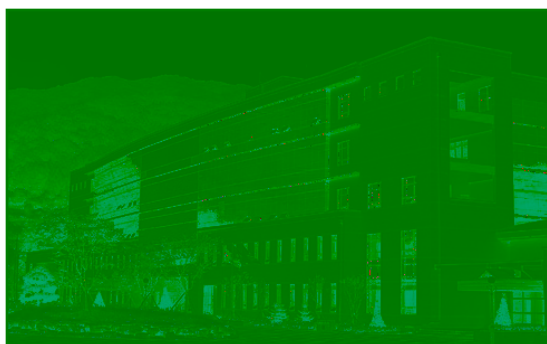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 및 과제

현재까지 추진된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시군구 등 기초생활권에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선도할 지역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RIC는 총 127개 센터를 지원, 현재 9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RIS는 총 126개 사업단을 지원, 현재 95개 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고, RRI는 총 19개 지자체 연구소를 설립, 운영 중에 있는 등 지역특화산업 및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역기업과의 공동R&D, 기술지원 등 지역특화산업 기술역량 강화 제고 측면이다. 원주 연세대첨단의료기기 RIC의 경우, 군사도시 원주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육성(02~09년 동안 의료기기업체 280% 증가, 생산액 542% 증가, 고용 329% 증가)하는 등 지역브랜드

및 위상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지역내 특화자원의 제품화를 유도하여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니트산업연구원 RIS의 경우, 지역기업인 S社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지사(絲) 신섬유소재를 개발하여 250억원의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구성원의 지역자립화 의식 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한정되어 지원하는 칸막이형 정책체제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지역특화사업내 세부사업간 연계협력 미흡으로 정책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그동안의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특화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한 특허, 첨단융복합기술, 연구노하우 등 소프트웨어 지원역량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정책틀에서 벗어나 지역특화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역 및 지원체계를 개방하고 융복합기술을 지원하는 개방·융합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추진 주체간의 정책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및 산업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프로세스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의료산업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 지역특화자원의 제품화 성과인 한지사 의류

